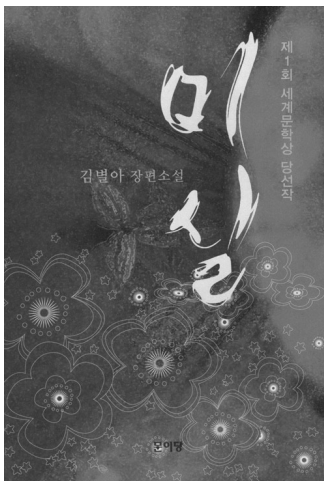


## 휴가철, 갓 출간된 소설들을 읽으며

유임하 | 문학평론가

오늘날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매개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유통된다.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영화나 멀티미디어의 위세에 문학이 떠밀려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학은 문학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몫이 따로 있고 문학의 상상력은 끝없이 소비되고 폐기되는 정보의 일회성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일회성의 덧없음과 욕망을 물신화에 맞서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묻는 문학의 세계를 함께 대면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김별아, 『미실』, 문이당, 2005

여름이 되면 아내와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간이다. 예나 지금이나 내게는 무더위에 펼쳐지는 노년의 끝없는 휴가 행진이 기이해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을 것이다. 무릇 휴가란 '쉽과 한가로움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던가. 못사람들의 행로를 벗어나 한가로움을 찾으려면 얼마간은 고즈넉한 처소로 깃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휴가 풍경은 웬지 계곡과 해변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의식주의 세계를 대자연의 품안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짙어 보인다. 휴가란 한가로운 장소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하다면, 평소 접어두었던 책과 침묵 속에 느긋함을 즐기는 모습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휴가철에는 느긋하게 그늘 아래 소설집 한 권을 펴 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방학이 다가올 때면, 나는 뻑뻑한 일상에 치여 숨가쁘게 들어가야만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 설렌다. 내 경우, 오히려 가을보다는 여름철이 책읽기에는 훨씬 적절해 보인다. 가을이 피워내는 처연한 단풍과 쓸쓸함은 따스한 사람들과 음식을 더불어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에, 쓸쓸함이 만들어내는 계절의 분위기는 책보다는 상념에 빠지는 것이 훨씬 적절해 보인다. 그러니 가을이란 계절에 책이란 온기와 함께 늦은 밤이 만들어내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그 이미지는 굳어져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무 그늘 아래 산책하다가 읽을 만한 소설집이나 시집으로 사색에 잠기는 건 여름에나 가능해 보인다.

습내로 누긋한 연구실에서 선풍기 한 대로 더위와 동서하면서 책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아니면 철 지난 비디오나 DVD를 한두 편 골라 열대야에 시달리는 밤 영화감상으로 늦은 잠자리를 청하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또는 시내 서점에 나가 신간 소설 창작집과 시집, 영감을 줄 만한 새로운 책은

없는지 순례를 떠나는 일도 좋을 듯하다. 휴가철의 이런 한가로움이란 그러나, 내게도 늘 목마른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어김없이 나는 눈에 띄는 소설 창작집을 구해 읽으며 미루어둔 글빛에 시달리고 있다.

### 정보와 상상력의 만남

일천 만을 상회하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 문화는 바야흐로 인류 문명의 첨단에서나 벌어질 병리적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인상이다. '개똥녀' 사건이 텔레비전에 거론된 것은 엇그제인데, 이것이 어느새 미국으로 과급되어 그곳의 사이버 공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놀랍다. 정보의 유통속도가 보여주는 이런 신속함과 광범위한 과급력이야말로 우리 자신들마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이다. 이렇듯 후기 산업시대에는 정보의 개방성과 신속성에 힘입어 더욱더 이야기가 왕성하게 만들어진다.

이야기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스캔들과 추문들이다. 이들 이야기는 기존의 신화들을 깨뜨리며 새로운 신화를 구축해 가는 지극히 보편적인 문화 형성의 과정에 속한다. 오늘날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매개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유통된다.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영화나 멀티미디어의 위세에 문학이 떠밀려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학은 문학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몫이 따로 있어 보인다. 프랑크 모레티의 표현을 빌려 보면, 근대소설은 근대국가와 함께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삶의 열정 대신 단호하게 개인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근대소설의 사적 영역이야말로 소설이 읽혀지는 기본 속성인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이야기는 정보와 상상력의 융합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보란

익히 알려진 것들보다는 사소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우리에게 한때 우상이 되었음직한 사실, 아니면 인터넷의 바다에서 떠돌고 있는 낯설고 낯선 사실들이다. 모니터를 켜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첫 번째 창, 뉴스 항목 아래 배너에는 시시각각 바뀌는 문자들의 행진 속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 정보는 '가장 많이 본 뉴스', '속보', '분야별 뉴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우스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 뉴스와 개인의 블로그가 융합되고 있듯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정보들의 끝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넘치고 넘친다. 역설적인 것은 황당한 사건이나 기이한 체험, 실시간의 속보들이 우리 현실과 과연 깊이 연계된 중요성과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정보를 담은 매끄러운 화면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제시하는 한편 또 다른 맥락을 은폐하기 십상이다. 많은 정보들을 대하다 보면, 쓸만한 정보보다는 쓸모 없는 정보들로 가득하다는 말이 가능하다. 개인과 사회의 관심사가 가진 가볍고 기이한 것들에 경사된 문화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란 근본적으로는 일회적이다. 그 일회성 안에는 말초적인 호기심이 뒤범벅된 신체 감각의 끝없는 연장(延長)과 만나는 정보의 유통소비 과정이 담겨 있다. 끝없는 감각의 연장과 소비의 욕망은 어딘지 모르게 닳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체감각의 호기심이 상품 소비의 욕망을 만들어내는 자본과 결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 음식에서 기호품, 집과 자동차, 인간관계에 이르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자본의 위력은 경탄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까지도 상품화의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

문학의 상상력은 끝없이 소비되고 폐기되는 정보의 일회성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정보의 유통경제, 곧

욕망의 속성과는 달리, 문학은 일회성의 덧없음과 욕망을 물신화에 맞서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묻기 때문이다. 그 되물음과 '곰곰이 생각하기'야말로 정보의 범람이 만들어내는 얽에 대한 중독성과 편의성에 맞서는 주체의 유일한 무기일지 모른다. 그런 예 하나가 박민규의 『지구영웅전설』에서 찾아진다. 그의 소설은 정보와 상상력의 융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하위문화에 속한 만화를 통해서 움을 틔운 그의 소설적 상상력은 자못 현란하다. 마이애미의 정신병원에서 배트맨의 본거지, UN과 WTO, 학원가의 새벽거리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이야기의 성찬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그 세계는 필연성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구의 방위를 떠맡은 만화 속 주인공처럼 우주와 대도시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의 초라한 삶에 관찰된 자본주의의 위력을 끝없이 조롱한다. 이를 두고 어찌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 것인가. 그의 이야기가 소설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정보의 고심 없는 소통을 무기로 거침없는 상상력이 절묘하게 결합한 대목이다.

그의 소설은 전지구적인 현실에 대한 만화적 상상력의 몽상과 키치적인 터치에 가깝다. 도시 문화에서 태어나 자란 이 시대의 독자들은 문화적 환경이 되다시피한 텔레비전과 만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소설의 정체성에 관해 일말의 반감도 없어 보인다. 박민규의 입심은 바로 만화의 몽상과 상상력이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후기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꾼의 새로운 전형 하나로 꼽아도 그리 손색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의 소설에서는 처연한 인간의 감정보다도 맹랑한 냉소와 몽상이 빚어내는 상상력의 즐거운 융합을 보여준다.

『카스테라』에 담긴 상상의 유희 역시 키치의 상상을 바탕으로 주변화된 존재들의 비애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집 나온 자취생이 발견한 냉장고의 문화적 가

치 발견(『카스테라』), 인턴사원의 비애와 게임중독자의 세계(『고마워, 과연 너구리아』), 푸시맨 아르바이트생의 어두운 가족사(『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공무원 지망생의 유원지 아르바이트(『아, 하세요 펠리컨』) 등은 인류학적 넓이를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의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주변적인 존재들의 쓸쓸함과 절망을 한꺼번에 반죽하여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바램(『몰라 몰라 개복치라니』)은 우주적인 조망으로 확장시킨 거침 없는 상상의 핵심에 가깝다. 박민규의 소설이 가진 이야기의 예측 불가능함은 관행화된 이야기의 건축학적 구성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혹스러우나 의문스러운 농담과 몽상이 유쾌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몽상과 넘나들기와 소재의 가로지르기는 자주 정보와 상상력의 활발한 융합현상을 보여주지만, 그 넓이만큼 세계의 어둠에 대한 성찰의 깊이를 확보하지는 못한 아쉬움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다.

### 후기 근대사회의 이야기꾼들

후기 근대사회에 걸맞은 소설의 현상은 이념에 대한 관심의 퇴조와 함께 자아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가난과 파괴되고 억압받는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농경문화의 상상력으로 응전해온 작가들이 신화와 전설로 남고, 도시 문화에서 성장하여 도시의 일상사에 익숙한 도시적 상상력과 입심으로 무장한 작가들의 출현에서도 감지된다. 이들 후기 근대사회의 이야기꾼으로는 그 선두에 성석제 김영하 김연수 등이 있고, 그 뒤로 김별아 백민석 김경욱 배수아 김종광 이만교 이평재 정이현 천운영 등이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김중은 이기호 안보윤 등이 속속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석제를 비롯한 김영하, 김연수, 김별아는 가까운

지금의 우리 소설이 과거에 대한 상상과 발견적 가치 확보에 진력하는 모습이나 후기 근대사회에서 정보에 의존한 상상력의 소비에 길들어 있는 외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한 이야기들이 스캔들과 추문을 반죽하여 보여주는 말의 성찬은 우리 사회가 가꾼 문화의 넓이와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므로.

근대 초기로부터 조선조, 더 나아가서는 고색창연한 신라의 시대까지 이야기의 행보를 넓힌다. 성석제의 『인간의 힘』,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가 가족과 주변인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장광설을 보여준다면, 김연수의 『나는 유명작가입니다』는 역사와 전적 속에 담긴 소재들을 펼쳐낸 농담 같은 독백으로 자명한 온갖 가치들이 균열을 일으킨 지점에서 코스모폴리탄에 가까운 인물들을 등장시켜 탈식민적인 상상을 활성화하는 경우이다. 김별아의 『미실』은 『화랑세기』에 기대어 신라사회를 배경 삼아 지모신의 관능을 빼어나게 창조해낸다. 역사라는 과거로 향하는 이야기의 벡터는 현재의 위치에서 기억의 역사를 이야기의 무대로 삼아 상상력의 원천을 마련하고 소설의 활력과 울림을 증폭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는 '후기 근대의 아들딸들', 70년대 이후에 도시에서 태어난 작가들이 있다. 이들은 은성환 자본주의의 빛과 그늘을 배경 삼아 주체의 소외와 불안을 가능한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앞서 거론한 박민규처럼, 몽상과 키치를 빌려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바로 후기 근대사회에 출현한 새로운 이야기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고기가 되어버린 사내 이야기(김중은의 『신선한 생선 사나이』), 악어로 상징되는 물신화된 도시민들의 처연한 꿈과 좌절에 관한 이야기(안보윤의 『악어떼가 나왔다』)처럼, 허구와 진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목격된다. 이들의 이야기는 견고한 현실의 테두리를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 대신, 현실은 한없이 가볍게 처리되고 대중소비문화의 그것처럼 상상이 유희를 벌이고 온갖 욕망들이 현시된다. 사회의 소망하는 바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

야기는 어항 속 고기처럼 소비대중문화의 틀 안에서 체제와 가치의 전복을 꿈꾸지만 그 체제의 속으로 투항하기 쉬운 징후 또한 예감된다. 이야기 자체가 소비되고 급기야 폐기될 운명이 바로 그것이다. 재미와 속도와 예리한 관찰력을 구비한 서술이 영상처럼 기술되는 점은 안보윤의 『악어떼가 나왔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수식어의 배제를 통해 섬뜩한 서술을 냉연하고 비인간적인 목소리로 담아낸 이야기는 사회의 물신화된 욕망을 보여주기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물신화된 도시에 관한 이야기 효과는 성찰에 이르기에는 왠지 미흡한, 검증되지 못한 제한적인 효과로만 거론될 혐의가 짙다.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 행로, 곧 과거로 거슬러 오르는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근대 사회를 탐문하는 이야기의 행방은 지금의 우리 소설이 진화를 거듭하는 현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 행로는 후기 근대사회의 진화과정과 동행하는 이야기 장르의 계통발생과 개체발생의 속성이기도 하다. 굳이 다윈의 이론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야기는 언제나 장구한 문화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계통발생의 경로를 추적하려는 속성과 참신한 이야기 개체의 발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지금의 우리 소설이 과거에 대한 상상과 발견적 가치 확보에 진력하는 모습이나 후기 근대사회에서 정보에 의존한 상상력의 소비에 길들어 있는 외양은 그런 맥락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한 이야기들이 스캔들과 추문을 반죽하여 보여주는 말의 성찬은 우리 사회가 가꾼 문화의 넓이와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므로.

독자들이여, 이번 휴가철에는 갓 출간된 싱싱한 소설 집으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작가들과 조용히 대면해 보는 것은 어떨지. 🍀